

“비닐장갑 아까워, 가져갈래”...재보선 투표소 별별 소동

아직 어색한 장갑...그대로 끼고 가는 시민들 '투표소 실수' 발길 돌려...“쪽방 산다고 이래” 선거사무원들 음료수 ‘원샷’...사무원들 당혹 “끝나고 하면 되잖아”...발열체크 거부하기도

“왜요, 아깝잖아. 집에 가져가서 쓸래요.”
4·7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시작된 7일, 서울 강서구 가양1동주민센터(가양3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한 중년 여성을 향해 선거사무원이 “장갑 버리고 가세요”라고 외치자 이 여성은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방 속에 장갑을 도로 넣었다. 투표 때 1분가량 사용한 장갑을 그냥 버리기에는 아깝다는 이유에서였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된 서울 지역 투표소에는 코로나19 선거철 필수 아이템으로 부상한 일회용 비닐장갑으로 인한 해프닝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들은 입구에서 가장 먼저 발열 체크를 하고, 손소독을 한 뒤 현장에서 지급된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했다.
이후 출구에 마련된 쓰레기통에 장갑을 버리는 것을 끝으로 투표를 마무리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직도 비닐장갑을 유권자들에게 낚신 모습이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삼성

2동 제5투표소)에서 만난 한 50대로 추정되는 아주머니는 “아휴, 답답해”라고 말하며 쓰레기통에 장갑을 벗어 던졌다. 손에 땀이 많은 유권자들의 경우 1분 가량 끼고 있는 비닐장갑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중에는 장갑을 벗는 것을 깜박한 채 발걸음을 옮기는 시민들도 있었다. 40대로 추정되는 한 유권자는 가던 발걸음을 돌려 투표소 앞 쓰레기통에 장갑을 버렸다.

마스크 내려달란 요청에 ‘떨떠름’... 발열체크 거부 사례도

투표 현장에서의 불편함은 비닐장갑뿐이 아니었다.
투표 입구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유권자들이 마스크를 잠시 내리게 되는데, 마스크가 익숙해진 상황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맨 얼굴을 보여주는 게 당혹스러웠다. 한 유권자도 있었다.
김모(27)씨는 “선거사무원들이 잠깐 마스크를 밑으로 내려달라고 했는데 당황했다”고 전했다. 김모(33)씨는

“신원확인을 위해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지만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긴 했다”고 말했다.
발열 체크를 거부하는 유권자도 있었다. 70대로 추정되는 한 유권자는 발열체크하라는 사무원의 말에 “투표 끝나고 하겠다”며 곧장 투표장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사전투표와 달라요...투표소 잘못 찾아 발길 돌려

투표소를 잘못 찾아 발길을 돌린 장면도 여럿이 연출했다.
40대로 추정되는 한 중년 남성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서울 종로구 교동초등학교(종로1·2·3·4가동제1투표소)를 찾았지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돌아가야만 했다.
종로1·2·3·4가동제2투표소로 가야했던 이 남성은 선거사무원들에게 “내가 쪽방 살아서 (투표를 못 하는) 그런 건가, 기분 나쁘다”라며 불쾌감을 보였다.
실제 이날 낮 12시 기준, 종로1·2·3·4가동제1투표소를 잘못 찾은 유권자만 1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선거사무원은 “보통 젊은 사람들이 투표소를 잘못 찾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투표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사전투표의 경우 전국 아무 곳이나 가능하지만 본투표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윤중초등학교(여의도제6투표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투표소 안까지 들었던 서울 영등포구 거주자 이모(30)씨는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이씨는 “회사가 여의도라 근처로 온 건데 점심시간을 이용해 영등포 집 근처 투표소로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휠체어 탄 유권자 불편함 토로 목소리...“1층에 투표소 필요”

휠체어를 탄 유권자들의 불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렸다.
최근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50대 이모씨의 가족들은 “여기 엘리베이터 없네요”라며 선거사무원에게 불었다.
삼성2동 제5투표소 투표장이 지하 1층에 설치되면서, 휠체어를 타고 내려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1층 같은 지상에 따로 투표장을 만들어주면 안되나”라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고령인 아버지를 모시고 온 30대 이모도 “엘리베이터 없네요”며 지하 1층에서 투표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시장선거 정말 중요”...보조기 이끌고 투표소 찾은 84세 할아버지
몸이 불편해도 소중한 한표를 행사



하기 위해 투표장을 찾은 80대 할아버지도 있었다.
서울 도봉구 도봉1동주민센터(도봉1동제1투표소)를 찾은 양모(84)씨는 자신의 가슴 높이까지 올라오는 보행보조기를 이끌며 힘겹게 투표소를 찾았다.
양씨는 투표권을 얻은 이후로 단 한번도 투표를 빠트린 적이 없다고 한다.
가족의 만류에도 투표소를 찾은 양씨는 “이번에도 정말 중요한 시장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하러 왔다”며 “투표하니 기분이 좋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웃으며 엄지와 검지를 맞대 ‘오케이’ 사인을 보였다.
“이쪽 출구 맞나요?...” “저 여기 일하는 사람 아니네요”
기동취재본부

투표소 곳곳에선 크고 작은 해프닝도 벌어졌다.
한 50대로 추정되는 아주머니가 투표를 마치고 출구에서 서 있던 학생에게 “이쪽으로 나가나요”라고 묻자 학생은 “저 여기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라며 다소 짜증스럽게 말했다.
부산에서는 한 유권자가 선거사무원의 음료를 ‘원샷’ 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날 오전 10시께 부산 연산제3동제1투표소 앞에서 역주행하던 50대 아주머니는 차를 멈추더니 “음료수 한잔 하고 갑니다”라고 말한 뒤 사무원을 음료를 들이켰다고 한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무원들은 당혹스러움을 내비쳤다는 후문이다.



소중한 일상의 회복 '백신이 답이다'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접종이 100만명을 넘어선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 직원이 웬 청바지?” 눈썰미에 금융사기 수금책 붙잡혀

‘저금리 전환 대출’ 속여 1억여 원 수금 30대 송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돈을 총책에 전달한 수금책이 어슬픈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다가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저금리 전환 대출 유혹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총책에게 보낸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광주와 전남·전북 등지에서 6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2000여만 원을 가로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총책에게 전했으며, 경비를 제외하고 1건 당 수수료 2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하기에는 어슬픈 ‘복장’ 탓에 들통이 났다.
A씨는 검거 당일 정오께 광주 서구 한 상가 앞에서 ‘기존 대출 잔금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직접 만나라’는 말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수 천만 원을 건네받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도 격의 없는 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B씨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A씨 행색이 수상하다고 판단, “대출 상품 전환 과정을 함께 확인하고 싶다”고 했고, 수금책 A씨가 올라탄 택시에 동승했다.
A씨는 이 같은 갑작스러운 상황을 보안 추적이 어려운 메시지를 통해 총책에 알렸고, 지시대로 택시에서 급히 내려 출행량을 쳤다.
이후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금만 의심히 살펴보고 의심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피해자 B씨의 눈썰미와 순발력이 수금책 검거에 기여했다”면서 “금융감독원·은행 등은 대출금 일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선욱 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